

## 26장. 빌닷을 향한 욥의 세 번째 대답

욥은 말이 궁해진 친구들을 조롱한 후에(1-4절) 창조주의 지혜와 권능을 찬송하기 시작한다(26:5-14).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을 정복하시고, 또한 라합이나 날랜 뱀과 같은 세력도 쳐서 파하신다(26:12-13).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26:14). 욥은 믿음으로 바른 고백을 하였다. 그런데 창조주의 능력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그의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라야 깨달을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며, 따라서 욥기의 정점인 하나님과의 대면을 기대하게 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 자기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욥은 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고(16:19),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소망을 두기도 하였으며(19:25-29),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데에 이른 것이다.

### 묵상과 실천:

- 1.